

## 데스크 시각

김 일 환  
현집부국장·여론매체부장

## 亞문화전당, 악샤르담에서 배워라

에 대한 이야기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전당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창적 지하 건축물이다. 완공된다면 그동안 알고 있던 랜드마크의 개념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수도 광주에 문화관광객들로 넘쳐나게 할 하드웨어로서 자리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도 2조 원이 투입된 광주 최대의 역사(역사)에 바라는 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다.

물론 문화발전소로서의 기능이 우선이겠지만 사실 문화수도 광주에 문화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객을 흡인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인도의 랜드마크 악샤르담

필자가 최근 방문한 인도 텔리의 악샤르담 사원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을 잘 보여주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달포 전 필자는 인도의 수도 데리에 있었다. 공무 차 찾은 데리에서 우연한 기회로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됐다. 관광 안내서에 나오지도 않고,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힌두교 종파인 스와미나리안의 사원 악샤르담을 찾은 것은 오직 가이드의 강요 때문이었다.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며 여길

보고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에 마지못해 찾아가게 됐다.

카메라도, 그 어떤 쇠불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원의 짜증나는 보안 검색을 마치고 접한 악샤르담의 첫인상은 인도의 여느 유적과 다름 없었다. 그러나 이런 첫 인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악샤르담은 사원 안에 놀이동산을 담아놓은 듯했다.

대형 아이맥스 영화관은 물론,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에서나 볼 법한 배를 타고 인도 역사사를 탐험하는 프로그램, 힌두교 지도자의 삶을 따라 체험하는 움직이는 인형의 집, 최첨단 기계장치를 이용한 관람실, 밤마다 춤추는 음악 분수 쇼 등 상상을 초월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악샤르담의 메인 건축물을 본 순간이었다. 규모의 웅장함은 둘째 치고, 사암과 대리석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들은 탄성이 절로 나왔다. 사람 손으로만 조각했다는 아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느 것 하나 똑같은 조각이 없고, 그 화려함이란 감히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타지마할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2005년 개관한 이 사원은 현대의 불가사리 부를 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제 군주시절이나 가능할 것 같은 대역사를 연인원 7만 명이 동원해 7년 만에 종교의 힘으로 완성했다는 점이다.

완공까지 1년여가 남았다고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각계의 의견을 모아 세계의 문화관광객을 흡인할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인도의 악샤르담과 같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랜드마크가 되길 소망해 본다.

터넷을 찾아보니 악샤르담을 찾은 이들은 필자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모두가 한복 소리로 악샤르담의 감동을 말하고 있다.

## 관광객 흡인 전략 세워야

이렇듯 악샤르담이 경이로운 랜드마크가 된 이면에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다. 신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원에 놀이동산을 불러 온듯한 체험공간은 감동을 준비하는 역발상의 장치다. 이를 통해 화려한 메인 건축물을 보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감동의 절정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문화전당도 그 건축의 독창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운용 전략만 잘 짜고,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 낸다면 얼마든지 광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경이를 충분히 선사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의 어떤 도시를 방문하건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이다. 문화전당이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악샤르담의 예에서 보듯 문화관광객을 흡인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치가 필요하다.

완공까지 1년여가 남았다고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각계의 의견을 모아 세계의 문화관광객을 흡인할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인도의 악샤르담과 같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랜드마크가 되길 소망해 본다.

## 은펜칼럼

## 인권친화적인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을 기대하며

한 덕분에 이제는 독립생활의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최소필요자금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시설에서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개인신변보호, 지역사회이용 등의 독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였으나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통장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룹 홈 사회재활교사 P씨의 참여로 통장관리 및 인출지원을 돋고 있다.

P씨처럼 지적·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후에 훌륭한 장애자녀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유산을 남겨주어 자녀가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바란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 기타 일상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처리가 스스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도록 하여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을 개정법원에서 지정하여 돋는 성년후견제도가 2011년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정신적인 문제나 장애로 인해서 올바른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 등의 신청에 의해서 금지신고를 받을 수 있었다.

기준 금지신고는 경정법원 제도에서는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만 (예로 재산의 처분 등) 제한을 가했지만 후견인 제도에서는 괴우경인의 신상보호에 대해서도 후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14일, 광주지적장애인협회 주최로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며, 의사결정지원 또는 사설상 보호하는 가족이 없는 자, 동거하는 가족이 고령(65세 이상) 또는 장애로 사설상 보호가 곤란한 자,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중 가족이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그려할 가능성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애인의 이의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 시설장인이 신청에 따라 지원 가능한 후견인을 양성하는 교육이었다.

법률로 정해놓은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 한정·특정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재산관리, 금전대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후견감독인 동의, 거주 중인 부동산 관

련사항은 가정법원 사전허가 필요,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한다.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을 것이다.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후견제의 필요성은 다양한 피해사례를 들어서 잘 알고 또한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바보 응구씨가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하여 만들어진 이 제도가 탄생되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시행제도의 인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후견인은 피후견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현존하는 능력을 존중하여 최대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친화적인 유용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인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 문화향기 없는 예향의 12월은 스산하다

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상 속 대작을 만나서 감동을 얻기에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사실 때문이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감상하기 위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4시간이나 차를 타고 간다. 도착하고 나서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시간 정도뿐이다. 르네 마그리트 그림도, 호안 미로의 그림도, 다 마찬가지다. 누구나 다 보고 싶어하는 대작들은 대한민국의 서울에만 걸어 둔다. 그것도 잠시뿐이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라는 안타까움과 서운함에 스스로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 본다. 혼란스러운 질문은 그 이상의 유연한 변화와 정정의 답을 내어 놓지 못한다.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된지 10년이 넘었다. 예향이나 문화도시라는 말은 광주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금남로를 지나다 보면 여전히 뚜렷 거리는 소리만 쉼없이 들릴 뿐 아시아문화의 전당은 없고 예술의 거리는 무미건조한 민관 학관이다.

'예향의 도시 광주'라면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광주 시민들과 예술인을 보내는 내 마음을 더욱더 허전하게 한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광주에

만 서울처럼 적극적인 배려와 지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시민들이 예술의 향기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역사와 문화들에 대한 친근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살고 있는 시민답게 일상 속 다양한 장르작들과 대작들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자유로운 창작 활동의 영역을 탐색하게 하고 멀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된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 속 인물들은 왜 얼굴이 짓뭉개겠는지, 왜 많은 화가들은 여

인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에 열광했는지, 접묘법화가들은 왜 점을 찍고 있었는지, 뒤상은 왜 변기를 미술관에 전시했는지를 이곳 광주에 있는 미술관에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행복한 날을 기다린다.

그리기에 나는 지금도 뚝딱 거리고 있으니 아시아문화의 전당은 세워질 것이고, 예술의 거리가 있으니 다행이고, 비엔날레는 계속 개최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확실하게, 미친 듯이 더욱더 미친 듯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12월은 내 마음을 스산하게 한다.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4/팩스 062-22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社 說

## 수십억 혈세 쓰는 光發研 제역 할 못한다니

광주시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발전연구원이 지난 2007년 7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분리된 이후 6년 5개월을 맞이했다. 하지만 매년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제대로 못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올해 사용하는 운영예산은 시 출연금 23억 원과 수탁과제(연구용역) 27억 8800만 원 등 50억 8800만 원에 달한다. 원장과 연구직 16명을 비롯한 인원은 모두 24명으로, 1인당 2억 원대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그런데 정책 연구과제 77건 중 광주발전비전 등을 제시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매월 한차례씩 발표하는 경제동향자료 등을 타기관의 자료를 짜깁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관련 연구과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타기관에 위탁하는가 하면 광주시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긴급히 요청되는 지원과제 중 일부는 수행조차 못했다고 한다.

전남발전연구원과 영남권 발전연구원이 정책 발굴과 제안을 통해 지역의 이슈를 선도하고,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의 경우 연구인력(17명)도 광주시와 비슷하지만, 올해 정책연구과제만 120여 건을 수행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무엇보다 연구서열을 중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연구진을 견제하는 잘못된 조직문화와 특정 연구진에게만 일이 몰리는 업무 과부하, 현 원장의 어설픈 조직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인 시각이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이제 환골탈태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혈세만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규제에 연연한다면 차라리 연구원을 폐쇄하는 게 낫다. 연구원을 수출해 바로 잡는 것은 광주시의 뜻이다.

## 세밀 이웃사랑은 따뜻한 마음이 먼저다

어느덧 세밀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면 누구랄 것 없이 지난 1년을 갈무리하게 된다.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쟁기고, 다가올 새해 계획을 세우느라 연말은 항상 분주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또한 뜻있는 삶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뉘엿뉘엿 해가 기울어가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온정의 순길이 하나둘씩 이어진다.

최근 폐수 수입금과 노점상 수입으로 자신보다 형편이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는 광주일보 7일자 보도는 새삼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장총의(73)씨는 고철·빈병·폐지 등을 수집해 번 돈 55만 원을 운임2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한다.

한해가 갈 무렵이면 불우한 이웃은 온정이 그립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아쉽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다. 매서운 겨울나기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사람들을 돋는 데 정자 필요한 것은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다.

## 無 等 鼓

1844년 5월 24일 미국 블리모어의 전신기(電信機·telegraph) 공개시연장, 초조하게 전신기를 바라보던 기계공 출신의 공장주 알프레드 베일의 눈 앞에 점(-)과 선(+)으로 된 신호가 수신되기 시작했다. 이는 같은 시각, 60km 떨어진 워싱턴의 시연장에서 미국의 발명가 사무엘 모스가 보낸 신호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선을 통해 보내진 이 신호는 "What Hath God wrought"(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라는 의미였다.

유선 전신기의 성공은 세상을 빠른 속도로 통합시켰다.

이어 7년 뒤에는 '전선연락기술'의 개발에 힘입어 유럽과 영국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설치됨으로써 '전선으로 연결된 하늘의 유럽'이 완성됐다.

최종적으로는 1866년 미국의 실업가인 사이러스 필드(Cyrus Field)가 몇 차례의 실패 끝에 영국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 횡단' 해저케이블을 성공으로 끌어올렸다.

최종적으로는 1866년 미국의 실업가인 사이러스 필드(Cyrus Field)가 몇 차례의 실패 끝에 영국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 횡단' 해저케이블을 성공으로 끌어올렸다.

/홍행기 사회팀장 redplane@kwangju.co.kr

## 光 州 日 报

사장·발행·편집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